

179. 주 예수의 강림이

- 1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못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 2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않나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양은 죄 많은자 불러서 구원하네
- 3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때 위로를 못얻으며 저 천국에 갈길도 못 찾으리
- 4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176.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 1 주 어느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 2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맞아 주실까
 - 3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 4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 후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 담당

6/17(화)	6/18(수)	6/19(목)	6/20(금)	6/21(토)	6/23(월)
이경승 안수집사	양용식 안수집사	신승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이선 안수집사	이준배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179장 다 함 께
 기 도 이범우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9:26~28 인 도 자
 찬 양 이 세상 험하고 새벽찬양대
 설 교 『나타나시리라』 임종희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176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26~28>

-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
타나셨느니라
-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20일(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 만이 구원영생을 얻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은 죄악투성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께서 당하신 치욕과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새문안교회에 우리들이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문안교회를 통해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역을 비롯한 헌당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디딤돌이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어 성도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뤄지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날마다 창대하여 그들로 인해 사회와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리며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